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1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28일(음 3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때 천둥 번개가 쳤는데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천둥 번개 잘못이나 귀머거리 잘못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 못 듣는 귀머거리 잘못이지 천둥 번개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냐? 귀머거리 아닌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리고 귀머거리인 사람은 천둥 번개가 안 쳤다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명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야! 귀머귀는 사람이 천둥 번개를 듣지 못하니 없다고 그럴 것이 귀 안 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쳤다고 할 것이네. 그건 누가 잘못인가?’ 그리고 귀머거리더러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입니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가 말 안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시다가도 끄트머리에 언제나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맞게 방법을 써도 좋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법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바꾸는 거지 다른 데서 바꾸는 게 아니니 시대에 맞춰서 그 계율을 바꾸어 서 해도 좋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 쓴 것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설한다면 이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썼어도 용어를 바꾸어서 부처님 말씀의 그 뜻을 전달하는데,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진짜 가고 옳이 없이 갈 수 있게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애걸 해 줘야 전 세계가 부처님 뜻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말입니다. 불교를 마구니 소굴로 알아오. 아이구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때 내가 결겔 웃었습니다. 결겔 웃고 “당신네들 하나하나가 불교 아닌 게 없어.”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이야. 그래서 이 우주 삼라 대천세계의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 당신네들이 말하는 블랙홀이야. 불심이, 그 불바퀴가 우리한테도 있어. 작은 거면 작은 것대로 큰 거면 큰 것대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고(高)다 이거야.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당신네들이 불교를 어디 국한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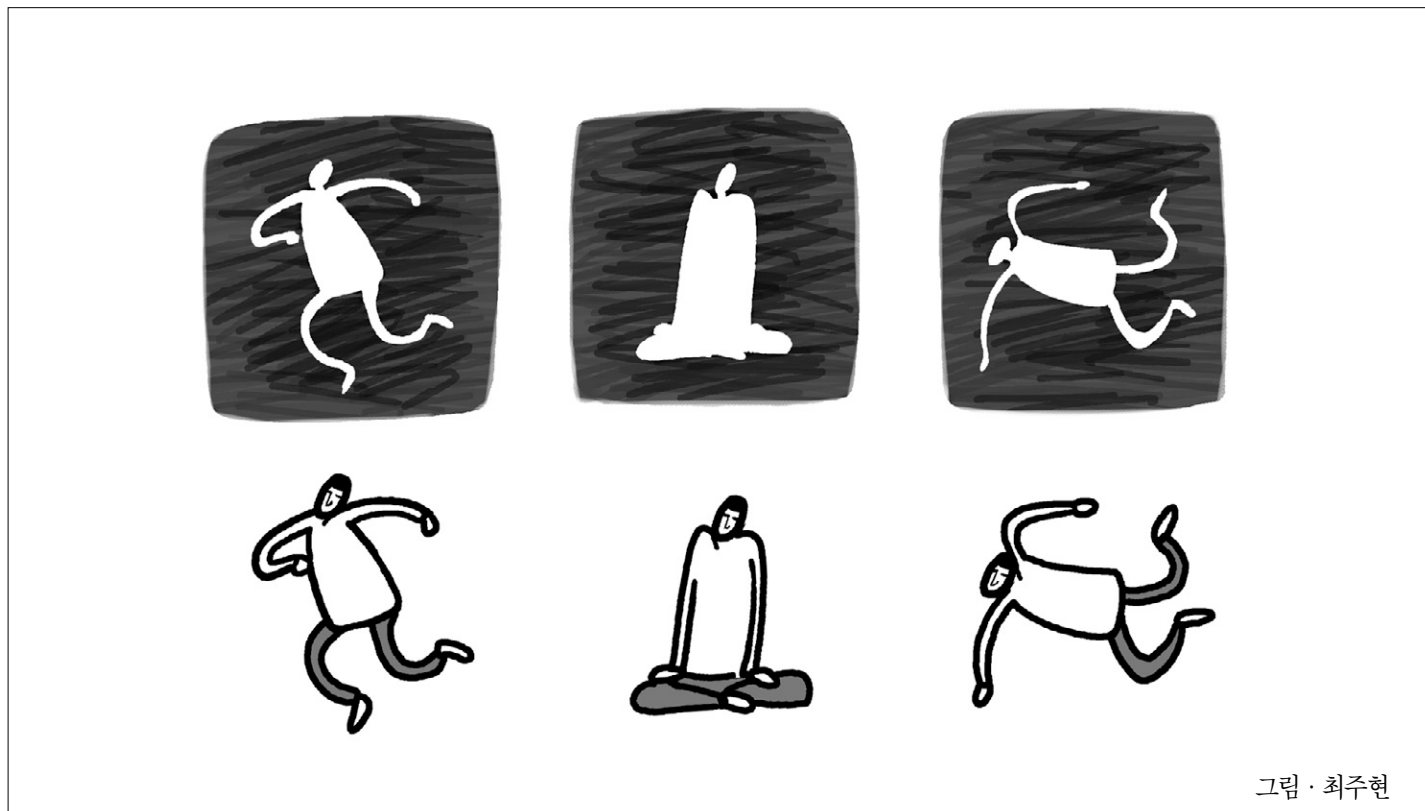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마구니로 알아?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미신이 있는 거고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안 하면 미신은 없어. 이 세상에 작고 큰 것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를 알려면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걸 알 수 있다. 여저런들 그렇게, 귀신짓은 너희가 다 하면서... 나도 가톨릭에 입교해 봤다.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더러 고하느냐 이거야. 신부더러 고하지?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가서 고한다면 사람 죽인 그 자체의 내 마음이 지워지거나 이거야.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죽인 그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 때 연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건 옳근데, 아니 세세생생에 아마 자기가 있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해도. 그런데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는 자는 자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할지 못해. 그런데 아니, 타의에다 모두, 자기가 잘못해 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곤 갖다가 거기다 말 거? 말긴다고 말거지는 줄 알아?’ 그랬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속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명통 천이통 천안통 또 타심통 신족통, 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깐. 천체망원경 또는 팩스, 신족통 또는 타심통, 탐지기 또는 무전통신기, 천이통. 또 속명통, 이거는 과거를 아는 것을 속명통이라고 그러니까. 속명통! 이 다섯 가지들 그렇게 컴퓨터로 표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모두 부수적으로 네 가지가 붙어 있지만 속명통에 의해서 컴퓨터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합이 되게끔 만드는 건 과거에 살던 하나하나가, 거기 속기로 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거기에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금방금방 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지금도 입력이 되면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지금 현실에 나와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안에 타치는 대로, 거기 입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보라.’ 하신 겁니

다. ‘너희가 한 구멍에서 나와서 일체 만법을... 일체 만물이 모두 살고 있고 또 한 구멍으로, 육근 육식 육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거기 한마음에서 다 나간다. 그러니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한곳 이거든, 한곳. 법륜 마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법륜 마크가 바로 그 오신통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끌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법륜 마크예요. 여러분이 달고 다니지 않아도 벌써 사람만 봐도 그게 바로 법륜 마크거든요. 법바퀴란 말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법바퀴예요.

그렇게 언짢은 거, 병고, 무슨 유전성, 모두 나오는 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에이 어늘야, 영원한 천구야!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전부 한 대로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깐 너 알아서 네놈이 다 해결해라.’ 하곤 그냥 거기다 되놓는다면, 여러분! 카세트에 입력된 거를 한번 지워 보신 일이 있으시죠?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노래를 듣다 듣다 그게 진력이 나면 다른 노래를 거기다 넣는다고 지워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다가 요 것이 좋다가도 언짢을 때가 있거든요. 언짢을 때가 차차없이 그냥 거기다가 말겨서 입력을 해 버리

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자 운명이 거기 왜 붙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병고니 하는 게 붙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번 생각 관습에 의해서, 나라는 아집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전부 망상이라고 자칭하면서, 글썽 망상이래요, 허허허... 무슨 망상입니까? 그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련 대상입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게. 그런데 그게 망상입니까. 망상은 풀으려고 해 봐도, 여러분이 죽어도 망상은 풀지 못할 겁니다. 칼로 물 베기지 그걸 끊어집니까? 그걸 끊어진 뒤에 공부하시려고요? 어림 반 풀어치도 없죠. 용광로에다 현 쇠니 새 쇠니 끊어진 거니, 그냥 모든 걸 갖다가 용광로 불 속에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서 새 쇠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신이 돼서 나온다는 생각을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넣기만 하라는 거죠. 생신이 돼서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죠. 작업을 한 작업만 하면 두 작업 세 작업이 다 저절로 나오는데 왜 한 작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라는 게 있고, 아집이라는 게 있고, 내가 안다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옳다는 게 있고... 그건 자기 그릇이죠. 종지도 제가 옳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한문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지야, 너 뭐를 한문하느냐?’ 그러니까 ‘야, 간장 담을 때 한문하잖아!’ 그러거든요. 하나도 틀림없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모든 것을,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조차도.

왜 무상하다고 하느냐. 버리고 변해지고 죽고 또는 모두가,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인간도 그대로 있질 않아요. 내가 늙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젊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잘하니깐 내가 해 했다. 그리고 또 남이 잘못했으면 원망을 하고 증오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아니 자기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상대가 있을까요? 그러니 잘못했다 잘못했다 떠나라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아주 극치적으로 열반길을 그냥 걸어가는 망상을 풀지 않고 그냥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죠.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그러다 좋다,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이 붙

26면으로 계속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드립니다.(무료)

-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 생명수 기(氣) 두 가지 중 하나가 본연에 있습니다.
-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진단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뇌졸중, 심장병,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 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주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원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도시가게 등에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엘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계, 가영, 향수나열, 도량계,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집합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분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2각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총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